



## “4년 뒤 월드컵은 우리가 주역이다”

순천의 아들 조규성

강진의 아들 이강인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의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의 중심에는 광주·전남 연고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태극전사 중 가장 주목받은 선수를 꼽자면 단연 스트라이커 조규성(24·전북)을 들 수 있다.

광주대 출신인 조규성의 아버지 고향은 순천 송광면으로, 지금도 할머니 이옥금(81)씨가 살고 있다.

조규성은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에서 지난해 9월 처음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뒤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며 대표팀 주축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애초 황의조(울림피아코스)의 백업 자원 정도로

여겨졌으나 올해 K리그1에서 17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소속 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벤투 감독의 부름을 꾸준히 받았고, 생애 첫 월드컵 출전 기회까지 잡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규성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만 후반 교체 출전했을 뿐 이후 브라질과의 16강전까지 3경기에 연속으로 선발 출전하며 대표팀 최전방을 책임졌다.

특히 가나와 2차전에서는 비록 2-3으로 패하긴 했어도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멀티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참모습을 유감 없이 뽐냈다.

‘골든 보이’ 이강인(21·마요르카)도 대표팀 막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광주·전남 연고 선수들 맹활약

조규성 - 월드컵 본선 첫 멀티골

이강인 - 4경기 출전 공격 이끌어

이지만 처음 나선 월드컵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강인의 어머니 강성미(50)씨는 고향이 강진 성전면 월평리이다. 현재 할머니 김영례(88)씨가 월평리 처인마을에 살고 있다. 강씨는 이곳에서 태

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이강인은 초등학교 때 고향 마을 회관에서 팀원들과 속삭이며 강진에서 열리는 축구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강인은 18세였던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고 대회 최우수선수상 격인 골든볼까지 수상할 정도로 일찌감치 한국 축구의 미래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벤투 감독은 2021년 3월 일본과 평가전(0-3 패) 이후 1년 반 동안 이강인을 찾지 않더니 월드컵을 앞둔 지난 9월 A매치 기간에는 오랜만에 대표팀에

소집하고도 두 차례 평가전에서 단 1분도 그를 뛰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강인은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4경기에서 2골 3도움을 올리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결국 월드컵 최종 명단에 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이번 월드컵에서 4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포르투갈전에서는 처음 선발로 나서기도 했다.

가나와 2차전에서는 교체 투입된 지 1분 만에 ‘택배 크로스’로 조규성의 첫 골을 도와 반격의 발판을 놓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 ‘캡틴’ 손흥민, 세 번째 월드컵 마무리 “다음 월드컵 출전? 제 능력이 돼야죠”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의 세 번째 월드컵이 끝났다.

16강전에서 높은 벽을 넘지 못한 손흥민은 웃지 못했다. 2014년 브라질 대회,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월드컵에 나선 손흥민에게 이번 대회는 더 간절하고 각별했을 터다. 그는 지난달 초 소속팀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를 치르다 상대 수비수와 강하게 충돌해 안와 골절상을 당했고, 월드컵 개막을 약 3주 앞두고 수술대에 올랐다.

월드컵 출전에 ‘빨간 불’이 켜지는 듯했지만,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나섰다.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뛰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드러냈고, 얼굴을 보호하는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조별리그 3경기과 16강전까지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다.

투혼을 펼친 그는 3일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3차전(2-1 승)에선 폭풍 드리블과 절묘한 패스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역전 결승골을 도우며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브라질에 막혀 더 나아가지 못했다. 대표팀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기약해야 한다.

손흥민은 이제 네 번째 월드컵을 준비한다. 4년 뒤면 34세가 되지만, 충분히 현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나이이다.

축구계의 ‘양대 산맥’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4·폴란드), 올리비에 지루(36·프랑스), 루카 모드리치(37·크로아티아)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다.

브라질전을 마친 손흥민은 다음 월드컵 출전 가능성에 대해 “그런 내 능력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거다. 나라가, 대표팀이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한 몸을 바칠 생각이 분명히 있다. 4년 동안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시간 동안 잘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원더골’ 백승호 ... “2002 월드컵 보며 축구 시작, 20년 지나 골”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내내 벤치를 지켰던 미드필더 백승호(25·전북)는 딱 한 번은 기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전반에만 네 골을 내줘 일찌감치 승부가 기운 브라질과 16강전에서 벤투 감독은 후반 20분 황인범(울림피아코스)을 빼고 백승호를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그라운드에 내보냈다.

그리고 나서 후반 31분 한국 대표팀의 이날 유일한 골이 백승호의 발끝에서 터졌다.

이강인이 상대 왼쪽 측면에서 차올린 프리킥을 브라질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냈으나 불은 페넬티아크 앞에 있던 백승호에게로 향했다.

그러자 백승호가 왼발로 잡아놓고 강력한 왼발 중거리슛으로 브라질 골대 오른쪽 구석에 불을 쏘았다.

출전 11분 만에 나온 백승호의 월드컵 데뷔골이었다. 브라질에는 조별리그 카메룬전(0-1 패)에 이은 이번 대회 두 번째 실점이었다.

백승호는 “2002년 월드컵을 보고 축구를 시작했는데 딱 20년이 지나 데뷔전을 치렀다”며 “(20년간) 힘들었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며 데뷔 소감을 전했다.

이어 “기회가 오면 자신 있게 슈팅을 차지고 했는데 마침 운이 좋게 내 앞에 공이 떨어졌다”며 “결정되면서 운 좋게 들어갔다.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하루고, 전환점이 될 것 같다”며 “여기가 끝이 아니다.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했다.

세계 강호들과 무대에 막 뛰어든 백승호에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의 벽은 높게만 다가왔다.

백승호는 “세계에서 꼽히는 최고의 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최대한 차분하게 하자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는 동굴이다. 경기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앞으로 더 발전하겠다. 이전처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일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브라질 경기. 백승호가 브라질의 골문을 여는 중거리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아르헨, 잉글랜드-프랑스, 브라질-크로아티아

## 8강 대진 화끈한 ‘빅 매치’ 성사

조별리그에서 이번이 속출했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16강에서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결과가 딱딱 나오고 있다.

6일 오전까지 이길 것으로 예상됐던 팀들이 모두 무난하게 승리해 8강에 안착했다.

네덜란드가 미국을 3-1, 아르헨티나가 호주를 2-1로 꺾었고 잉글랜드와 프랑스도 각각 세네갈과 폴란드로 3골씩 터뜨리며 승리를 거뒀다.

‘우승 후보 0순위’ 브라질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반에만 4골을 퍼붓는 맹공을 펼친 끝에 4-1로 이겼다.

16강 대진 가운데 그나마 전력 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크로아티아와 일본의 경기는 승부차기 끝에 크로아티아가 3-1로 승리했다.

남은 16강전 두 경기는 모로코-스페인, 포르투갈-스위스 경기다.

세계 랭킹 9위 포르투갈과 15위 스위스는 어느 쪽이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접전이 예상되고, 스페인과 모로코 전은 모로코가 승리할 경우 이번 대회 16강전 유일한 이번이 되는 셈이다.

역설적으로 16강에서 이번이 생기지 않고, 이길 팀이 이겨 올라가면서 8강 대진은 대부분 화끈한 ‘빅 매치’가 성사됐다.

먼저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준준결승에서 만나고, ‘양속’으로 유명한 잉글랜드와 프랑스도

4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맞닥뜨렸다.

또 브라질과 크로아티아 전도 브라질로서는 한 차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남은 16강 대진에서 세계 랭킹이 높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겨 8강에 오를 경우 이번 대회 8강 대진은 말 그대로 ‘결승전급 준준결승’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게 된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인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23세 신예 코디 학포(네덜란드)의 ‘세대 격돌’에 관심이 쏠린다.

해리 케인의 잉글랜드와 킬리안 음바페가 이끄는 프랑스의 8강전은 8강 매치업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두 나라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는 것은 1982년 스페인 월드컵 조별리그(잉글랜드 3-1 승) 이후 무려 40년 만이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아트 스카’ 프랑스의 8강 격돌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8강전은 크로아티아로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 패배를 설욕할 기회다.

당시 브라질의 ‘안방 잔치’ 개막전 상대로 낙점된 크로아티아는 1-1로 맞서던 후반 26분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결국 1-3으로 졌다. /연합뉴스

## 일본, 또다시 승부차기로 좌절된 ‘8강의 꿈’

크로아티아에 1-3 패배

일본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8강의 꿈은 다시 4년 뒤를 기약하게 됐다.

일본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자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크로아티아와 경기에서 1-1로 비긴 뒤 연장전을 득점 없이 마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1-3으로 졌다.

1번 키커 미나미노 다쿠미를 시작으로 2번 미토마 가오루, 4번 요시다 마야의 슈팅이 크로아티아 골키퍼 도미니크 리바코비치에게 모두 막혔다.

이로써 일본은 2002년, 2010년, 2018년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네 번째 월드컵 16강 탈락의 쓴잔

을 들었다.

일본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 가운데 월드컵 16강에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다.

한국도 2002년, 2010년, 2022년 대회 등 세 번이 전부다. 또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본선에서 나란히 7승씩 거둬 최다승 국가이기도 하다. 2회 연속 16강에 오른 최초의 AFC 소속 국가가 바로 올해 일본이다. AFC 소속 국가로는 1966년 북한, 2002년 한국이 월드컵 8강에 오른 바 있다.

모리야스 감독은 “선수들은 일본 축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줬다”며 “우리는 독일과 스페인을 이겼고,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들을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